



새벽이 올 거라는 믿음

범서고 3-10 이준빈

밤이 조금씩 끝나고 해가 떠오르기 직전 밖에 나가 산책을 해 본 경험
이 다들 있을 겁니다. 적어도 새벽의 공기를 마셔본 사람은 그 또 다른 하
루가 시작되는 상쾌한 분위기에 조금은 취해 보았을 겁니다.

저도 그러한 의미에서 새벽을 좋아합니다.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해가
뜨기 전, 아직 세상이 일어나기 전에 나 홀로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만
같은 기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샘솟게 만들기도 하고 몽
롱한 분위기에 취해 오래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.

강렬한 태양 빛이 세상을 비추기 전, 힘없는 푸른빛은 그 나름대로 또
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 그래서 새벽이 좋습니다. 어제의
세상 사람들의 힘듦과 아픔을 상쾌한 공기로 전부 씻어주고 우리에게 관
찰다,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 말해주는 새벽이 전 너무나 좋
아 새벽을 기다리고는 했습니다. 시간이 11시, 12시가 되어 본격적으로
어둠이 세상에 드리우기 시작하고 3시, 4시가 되어 온 세상이 고요해질
때 전 지금 잠들면 새벽을 보지 못할까 봐 쏟아지는 잠을 몇 번이고 참아
내며 종종 새벽을 기다리곤 합니다.

하지만 우리는 모두 압니다. 새벽을 보지 못한다 해서 낮이 오지 않는
것은 아니며 새벽은 내일도, 모래도 지구가 열심히 돌고 있는 한 반드시

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어요.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. 아무리 밤이 길고 내가 졸리다 하여도 새벽은 언젠간 오기 마련이죠. 그렇기에 저는 새벽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. 이 긴 밤을 참고 참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푸른 희망의 빛을 띤 새벽이 나에게 찾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저는 긴 밤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밤에게 패해 잠에 들었다 하여도 또 다른 새벽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단지 그것뿐입니다. 또 다른 새벽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.

우리는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희망은 새벽처럼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이죠. 혹은 실낱같은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지금의 밤이 너무나 어두워 그 조그만 푸른빛으로 는 도무지 이 어둠을 밝게 만들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희망은 우리에게 언젠간 나타나 태양을 불러옵니다, 새벽처럼요! 희망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동쪽에서 뜰 거대한 빛을 예견하는 새벽처럼 우리에게도 전부 괜찮아질 거라는 예고를 하듯이 희미한 푸른빛을 비춰줍니다.

설령 오늘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여도 괜찮습니다. 내일 발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. 한 달? 일 년? 얼마든지 괜찮습니다! 새벽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희망도 항상 우리 곁에 나타날 것입니다. 우리는 단지 그 희미한 푸른빛을 보고 믿는 것뿐입니다. 곧 뜨거운 태양이 다시 세상을 비출 것이라는 사실어요. 그러니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.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새벽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린 푸른 희미한 빛이 작게나마 세상을 비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.

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새벽을 기다립니다.

어느 이의 세상의 밤은 곧 새벽이 올 것처럼 간지럽기도 하지만 어떤 이의 밤은 희망의 푸른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습니다. 우리는 저마다의 밤을 가지고 새벽을 기다리고 있지요.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누군가는 번잡한 도심 속 가로등에 기대어 새벽을 기다리며 누군가는 방 속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립니다. 그러니 서로 조금 더 서로를 아껴줍시다. 각자의 밤을 이해하려고 하고 같이 새벽을 기다리다 보면 모두의 세상이 조금 더 환해질 수 있을 겁니다.

